

노동환경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

김정유
송실대학교 정신건강연구소

The Effect of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on Settlement Consciousness: Mediating Effect of Subjective Employment Stability

Jung-Yoo Kim

Researcher, Dept. of Mental Health Research Institute, Soongsi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2021년 강원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요 노동 인구의 노동환경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과 주관적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노동환경 만족도는 근로소득 만족도, 노동여건 만족도, 지역생활 만족도 3가지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노동환경 만족도의 3가지 하위영역과 주관적 고용안정성은 정주의사와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리고 각각의 노동환경 만족도의 3가지 하위영역이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칠 때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노동환경 만족도와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힘으로써 지방 인구유출 예방을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노동환경 만족, 정주의사, 주관적 고용안정성, 근로소득 만족, 노동여건 만족, 지역생활 만족

Abstract This study used Gangwon provincial social survey data(2021) to verify the effect of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of the main working population on settlement consciousnes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ubject employment stability. The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three sub-factors: income satisfaction, working conditions satisfaction, and community life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all three sub-factors of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subjective employment stability had a positive correlations with settlement consciousness. It was confirmed that subjective employment stability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when each of the three sub-factors of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affected settlement consciousn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meaningful to provide empirical data for preventing outflow of the local population by revealing the effect of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subjective employment stability on the settlement consciousness.

Key Words Work environment satisfaction, Settlement consciousness, Subjective employment stability, Income satisfaction, Working conditions satisfaction, Community life satisfaction

Received 14 Feb 2023, Revised 10 Mar 2023

Accepted 21 Mar 2023

Corresponding Author: Jung-Yoo Kim
(Soongsil University)

Email: corea-yes@nate.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지방소멸의 위기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이다. 2000년대 초반 이후 현재까지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사망자 비율을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 2020년에는 0.84을 기록하였다[1]. 즉 출생자가 사망자보다 적은 인구의 자연감소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극히 일부 지역이나 전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현상이다[2]. 이러한 인구 감소와 함께 급속한 고령화는 지방소멸을 부추기는 또 다른 위험요인이기도 하다. 2021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38.9%인 89개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었다[3].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중 95.5%인 85개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것이었다.

인구감소는 지역 경기 위축을 유발하고 수요 감소로 인한 교육, 노동, 문화 등의 생활서비스 공급의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는 해당 지역 전체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지방소멸은 단순 지방의 인구감소만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경제의 붕괴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를 위기에 빠트릴 수 있다.

한편, 지방소멸의 위기를 단순하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만 바라보기보다는 더 확대된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과 유입을 나타내는 인구의 사회적 이동도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4]. 전통적으로 농업 기반의 사회구조를 형성하고 있던 한국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시대에 이른바 이촌향도의 인구이동 경험을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농어촌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자료(2021)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부산, 대구 등을 포함한 전국 모든 권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있으며, 수도권의 인구밀도의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5]. 이는 지역 간 인구분포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전국 인구 중 50%이상이 국토의 약 12%인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다[4]. 또한 이처럼 인구가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면 지방은 지역 성장 동력을 잃게 되고 반면, 수도권은 일자리 문제, 주거문제 등이

야기되어 결국 생활여건도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 이동은 지방소멸 위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인구 유출은 지역 존립 자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의 유지와 발전의 원동력인 지역주민의 정주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6-10].

하지만 인구 유출은 단기간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경제, 산업, 교육 등 지역 전반에 걸쳐 연계되어 있다[11]. 특히 지역 내 고용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어 한 지역의 주민 정주의사는 노동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과거의 인구 이동은 취업기회와 소득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이 우선 시 되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에 관한 Lewis(1954)의 연구[12]와 Todaro(1969)의 장래 소득 기대에 관한 연구[13]이다. Lewis(1954)는 농촌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소득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설명하였으며, Todaro(1969)는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의 차이 보다는 장래에 기대되는 소득의 차이가 인구 이동에 미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가 한 지역에 정주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난 연구[10,14,15]가 있다. 이처럼 소득이 지역 정주의사에 대한 영향요인인 것은 현재까지도 적용 가능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큰 폭의 경제성장 이후, 경제적 측면과 함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편의, 교통, 공공서비스의 질, 산업구조 등 지역 환경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인구의 유입과 유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16,17]. 그러므로 한 지역 주민의 정주의사에 대한 연구의 방향도 경제적 환경과 삶의 질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11].

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정주에 중요한 요인으로 삶의 만족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10,18-23]가 있다. 거주 지역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며[23,24], 관련 제반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감소하면 주민의 거주 이동이 증가한다[21].

그리고 정주의사와 관련성이 있다고 예상되는 하나의 요인이 주관적 고용안정성이다. 주관적 고용안정성

은 고용 지속에 대한 불확실성과 업무관련 다양한 요인들을 다차원적으로 고려한 종합적 지표이다[25]. 이는 비록 정규직 일자리처럼 객관적으로 고용의 지속성이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 개인이 생각하는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을 경우 주관적 고용안정성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가능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최근 고용의 유연화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점차 커지고 있어 노동자의 주관적 고용안정성 또한 인구 이동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고용안정성과 정주의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하지만 정주의사와 관련이 있는 이직의사와 고용안정성에 관한 연구[26-29]에서 고용안정성이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주의사와 노동환경, 정주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직의사와 고용안정과의 각각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노동환경 만족과 정주의사와의 관계에서 고용안정성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한편, 강원도는 수도권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반사이익보다는 사회경제적 인프라의 상대적 부족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의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강원도의 인구는 최근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연평균 0.03%씩 감소하였지만, 최근 10년 기준 자료에서는 0.0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0]. 이는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원주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청 소재지인 춘천의 꾸준한 인구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된다[31]. 하지만, 이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며 인구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강원도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26]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향후 20대에서 50대 연령층의 주요 노동 인구 감소는 예측 가능하다. 인구의 유입 없이 타 지역으로의 노동 인구 유출은 지역 경제 위축을 야기하고 인구 이동을 가속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주요 노동 인구의 강원도 정주 관련 요인을 탐색하고 분석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 중에서 이들의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고 규명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의 주요 노동 인구(20대에서 50대 연령층)의 정주의사에 영향을 주는 노동환경

관련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노동환경 만족도와 정주의사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강원도민의 정주의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노동환경 만족도와 정주의사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2. 근로소득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 연구문제3. 노동여건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 연구문제4. 지역생활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3일까지 실시한 「2021년 강원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에 거주 중이며, 노동활동에 참여 중인 만 20세 이상 만 60세 미만 대상자 총 9,983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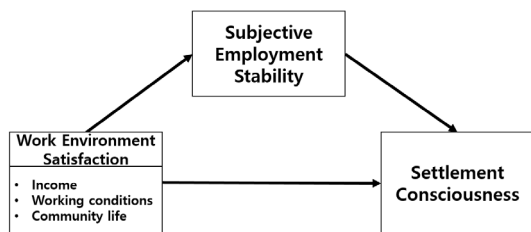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9,983)

Characteristic		N	%
Gender	Male	5,726	57.4
	Female	4,257	42.6
Age	20s	1,104	11.1
	30s	1,818	18.2
	40s	2,952	29.5
	50s	4,109	41.2
Marital status	Single	2,227	22.3
	Have a spouse	6,902	69.1
	Bereavement	175	1.8
	Divorce(+separation)	679	6.8

Characteristic		N	%
Residential condition	Homeowner	6,576	65.9
	Long-term lease/deposit	744	7.5
	Monthly rent	1,437	14.4
	Free residence	1,226	12.3
Education level	≤Elementary	260	2.6
	middle school	567	5.7
	High school	4,425	44.3
	≥University	4,731	47.4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million won)	<100	199	2.0
	100-200	1,009	10.1
	200-300	2,079	20.8
	300-400	2,179	21.8
	400-500	1,685	16.9
	500-600	1,120	11.2
	≥600	1,712	17.2
Job	Professional management	1,661	16.6
	Office worker	1,636	17.0
	Service sales	2,527	25.3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759	7.6
	Functional	1,958	19.7
	Etc.	1,382	13.8
Residence period (year)	M±SD 28.99±17.86	Min. 1	Max. 59

2.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Fig. 1].



[Fig. 1] Research Model

2.3 연구항목

2.3.1 노동환경 만족도

본 연구에서 노동환경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근로소득 만족도, 노동여건 만족도, 지역생활 만족도의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근로소득 만족도는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비해 이에 따른 소득에 대한 만족정도

를 의미한다. 또한, 노동여건 만족도는 업무 내용, 업무량, 성격 등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낸다. 근로소득 만족도와 노동여건 만족도의 응답범주는 매우 불만족 1점에서 매우 만족 5점까지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지역생활 만족도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로, 응답범주는 전혀 만족하지 않음 1점에서 매우 만족함 10점까지의 Likert 10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3.2 주관적 고용안정성

본 연구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은 ‘직장을 잃거나 직장을 바꾸어야 한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으신가요?’의 단일문항으로 응답범주는 매우 많이 느낌 1점에서 전혀 느끼지 않음 5점까지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3.3 정주의사

본 연구에서 정주의사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은 ‘향후 10년 이후에도 강원도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으신가요?’의 단일문항으로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음 1점에서 매우 그러함 5점까지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2.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26.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노동환경 만족도와 정주의사의 관계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에 의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32]. 또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의 검정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차한계가 .804에서 .927로 모두 .1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요인(VIF) 값은 1.078에서 1.244로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결과

3.1 주요 변수의 수준

연구대상자의 노동환경 만족도, 주관적 고용안정성, 정주의사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노동환경 만족도의 3개 하위영역 각각의 평균은 근로소득 만족도 3.19(SD=1.01), 노동여건 만족도 3.56(SD=.92), 지역생활 만족도 6.34(SD=2.04)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관적 고용안정성은 평균 3.41(SD=1.18), 정주의사는 평균 3.86(SD=1.03)으로 나타났다. 또한, 왜도는 -.143에서 -.918이고, 첨도는 -.116에서 -.812로 나타나 모든 변수가 정규분포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research variables

Variables		M±SD	Skewness	Kurtosis
Work environment satisfaction	Income	3.19±1.01	-.143	-.428
	Working conditions	3.56±.92	-.298	-.116
	Community life	6.34±2.04	-.354	.162
Subjective employment stability		3.41±1.18	-.333	-.812
Settlement consciousness		3.86±1.03	-.918	.462

3.2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정주의사와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분석결과는 <Table 3>와 같다. 정주의사와 근로소득 만족도 ($r=.140, p<.001$), 노동여건 만족도($r=.159, p<.001$)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지역생활 만족도 ($r=.316, p<.001$)와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정주의사와 주관적 고용안정성($r=.183, p<.001$)과도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Work Environment satisfaction			Subjective employment stability	Settlement consciousness
	Income	Working conditions	Community life		
1	1				
2	.632***	1			
3	.303***	.317***	1		
4	.400***	.397***	.243***	1	
5	.140***	.159***	.316***	.183***	1

3.3 근로환경 만족도와 정주의사와의 관계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

근로환경 만족도의 3개 하위영역과 정주의사와의 관계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3단계 절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는 근로만족도가 주관적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2단계는 근로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3단계는 근로만족도와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3.3.1 근로소득 만족도와 정주의사와의 관계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

근로소득 만족도와 정주의사와의 관계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1단계에서 근로소득 만족도가 매개변수인 주관적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399, p<.001$), 2단계에서 근로소득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171, p<.001$). 그리고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beta=.113, p<.001$), 근로소득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2단계에서보다 감소하였다($\beta=.171 \rightarrow \beta=.126$). 따라서 근로소득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주의사에 대한 설명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2단계에서 근로소득 만족도가 18.5%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나,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투입된 3단계에서는 설명력이 19.5%로 1.0% 증가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Sobel의 Z값

<Table 4> Results of Mediating Effect Analysis(1)

Step	B	SE	β	t(p)	F(p)	R ² (ΔR^2)	
1	Income → Subjective employment stability	.469	.011	.399	43.116***	112.705***	.183
2	Income → Settlement consciousness	.175	.010	.171	18.437***	113.988***	.185
3	Income → Settlement consciousness	.129	.010	.126	12.545***	116.043***	.195(.10)
	Subjective employment stability → Settlement consciousness	.098	.009	.113	11.317***		

은 10.550으로, 근로소득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의 부분매개효과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3.2 노동여건 만족도와 정주의사와의 관계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

노동여건 만족도와 정주의사와의 관계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1단계에서 노동여건 만족도가 매개변수인 주관적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394, p < .001$), 2단계에서 노동여건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184, p < .001$). 그리고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beta = .107, p < .001$), 노동여건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2단계에서보다 감소하였다($\beta = .184 \rightarrow \beta = .142$). 따라서 노동여건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주의사에 대한 설명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2단계에서 노동여건 만족도가 18.9%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나,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투입된 3단계에서는 설명력이 19.8%로 0.9% 증가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Sobel의 Z값은 10.137로, 노동여건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의 부분매개효과는 p<.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3.3 지역생활 만족도와 정주의사와의 관계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

지역생활 만족도와 정주의사와의 관계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1단계에서 지역생활 만족도가 매개변수인 주관적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beta = .228, p < .001$), 2단계에서 지역생활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력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 = .307,$

<Table 5> Results of Mediating Effect Analysis(2)

step	B	SE	β	t(p)	F(p)	R ² (ΔR^2)	
1	Working conditions → Subjective employment stability	.505	.012	.394	42.339***	109.273***	.178
2	Working conditions → Settlement consciousness	.206	.010	.184	19.909***	117.341***	.189
3	Working conditions → Settlement consciousness	.159	.011	.142	14.207***	118.637***	.198(.90)
	Subjective employment stability → Settlement consciousness	.094	.009	.107	10.825***		

<Table 6> Results of Mediating Effect Analysis(3)

step	B	SE	β	t(p)	F(p)	R ² (ΔR^2)	
1	Community life → Subjective employment stability	.132	.006	.228	23.471***	45.115***	.081
2	Community life → Settlement consciousness	.156	.004	.307	35.028***	166.692***	.249
3	Community life → Settlement consciousness	.145	.005	.285	31.842***	166.018***	.258(.90)
	Subjective employment stability → Settlement consciousness	.084	.008	.096	10.703***		

$p < .001$). 그리고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서($\beta = .096, p < .001$), 지역생활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은 2단계에서보다 감소하였다($\beta = .307 \rightarrow \beta = .285$). 따라서 지역생활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주의사에 대한 설명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2단계에서 지역생활 만족도가 24.9%의 설명력을 나타냈으나, 주관적 고용안정성이 투입된 3단계에서는 설명력이 25.8%로 0.9% 증가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결과, Sobel의 Z값은 9.476으로, 지역생활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의 부분매개효과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는 노동환경 만족도의 3개 하위영역과 정주의사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노동환경 만족도 하위요인 각각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강원도에 거주 중인 20대에서 50대까지의 노동활동에 참여중인 9,983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근로소득 만족도와 노동여건 만족도, 주관적 고용안정성은 정주의사와 각각 약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지역생활 만족도와 정주의사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노동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정주의사가 높고, 주관적 고용안정성 역시 높을수록 정주의사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23,24]와 일부 일치한다.

둘째, 노동환경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만족도, 노동여건 만족도, 지역생활 만족도 3개 하위요인 모두 부분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노동환경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주관적 고용안정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주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노동환경 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근거로 지방소멸 위기의 한 가지 해결방안으로서의 정주의사 제고를 위한 노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환경 만족도와 주관적 고용안정성을 고려한 정주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강원도 사회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소멸에 대하여 노동환경과 고용안정성, 정주의사에 초점을 맞춰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연구로써 그 활용에 있어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주의사에 대한 심층적인 질적 연구도 진행되었으면 한다.

References

- [1] 통계청, “2020년 출생통계”, 2021.
- [2] 조영태, “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인구 미래 공존”, 서울: 북스톤, 2021.
- [3]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고시”, 2021-66, 2021.
- [4] 김현호, “지방소멸 위기지역 활성화 전략”, 지방자치 이슈와 포럼, 39, pp.10-21, 2021.
- [5]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2021.
- [6] 최재국·문국경, “사회적 자본이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도시위험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33(3), pp.77-95, 2021.
- [7] 장철규, “도시재생사업이 장소애착 및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대구시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55(2), pp.58-72, 2020.
- [8] 고가은·김희수·정석, “완주군 청년공간이 청년의 정주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6), pp.103-118, 2019.
- [9] 황성호·이희선,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주의식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공공관리학보, 33(2), pp.1-36, 2019.
- [10] 엄창욱·노광욱·박상우, “지역청년의 정주 및 귀환

- 결정요인: 대구지역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지역사 회연구, 26(3), pp.259-283, 2017.
- [11] 김경수·허윤수·서옥순·최효비·이우평·이진숙·최청락, “부산 청년인구 유출입 특성과 청년인구 유지 방안”, 연 구보고서 현안연구, pp.1-130, 2022.
- [12] W. A. Lewis,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22, pp.139-191, 1954.
- [13] M. P. Todaro, “A Model of Labor Migration and Urban Unemployment in Less Developed Countries”, American Economic Review, 59, pp. 138-148, 1969.
- [14] 임형섭, “지역 청년층 취업이동 분석 및 정책적 대응”, 정책연구, 나주: 광주전남연구원, 2022.
- [15] 정성호, “강원도의 인구이동 유형과 특성”, 한국인 구학, 31(2), pp.133-155, 2008.
- [16] 박혜궁, “지역주민의 주거환경만족도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비교를 중심으 로”, 인문사회 21, 9(2), pp.163-174, 2018.
- [17] 김리영·양광식, “인구 유입과 유출을 결정하는 지역 특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3), pp.1-20, 2013.
- [18] 최형재, “지역의 사회·문화 여건이 대졸자들의 지 역이동에 미치는 효과”, 노동정책연구, 22(2), pp. 97-125, 2022.
- [19] 최지연·홍은영, “수원시민의 삶의 만족과 도시정서 변수가 정주의사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학, 17(1), pp.89-122, 2016.
- [20] 박혜옥, “생활권의 주거의 질이 정주 안정성에 미 치는 영향연구: 대전시를 사례로”, 한국지역경제연구, 12(3), pp.193-214, 2014.
- [21] 이희창·박희봉·정우일, “지역주민의 정주의사에 미 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3(3), pp. 147-167, 2004.
- [22] 손정목, “정주권 구상의 배경과 본질”, 도시문제, 16(2), pp.8-19, 1981.
- [23] J. H. Oh, “Social bonds, and the migration intention of elderly urban resi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residential satisfaction”,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2, pp.127-146, 2003.
- [24] 황윤원·임장근·송용찬, “혁신도시 이전기관 직원의 지역통합방안 연구: 정주의사 영향요인을 중심으 로”, 국가정책연구, 28(4), pp.141-163, 2014.
- [25] 김영아·Noël Bonneuil, “불안정 고용의 동태적 분석: 주관적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2019-13,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2019.
- [26] 강은영, “코로나 고용불안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 정서적 소진과 지식은폐의 매개효과와 경력만 족, 고용가능성 및 성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 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 [27] 강미·이지연·유용상, “스포츠강사의 고용불안과 직 무소진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무만족의 조 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11)1, pp. 83-96, 2016.
- [28] 허용덕·정기성, “식음료접객직원의 직무스트레스 와 직장-가정갈등 및 이직의도와와의 관계에서 고 용불안정의 매개효과분석”, 관광레저연구, 28(4), pp.319-335, 2016.
- [29] 최점수·변상해, “중소기업 법정관리회사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 향”, 벤처창업연구, 9(5), pp.181-192, 2014.
- [30] 통계청, “주민등록 인구통계”, 2021.
- [31] 이제연·김현호, “강원도 인구이동 분석을 통한 지역 특화발전 방안연구”, 정책이슈리포트, 원주: 한국지 방행정연구원, 2021.
- [32] R. M. Baron & D. A. Kenny,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pp.1173-1182, 1986.

김 정 유(Kim, Jung-Yoo)



- 2022년 9월~2023년 현재 : 숭실대 학교 정신건강연구소 연구원
- 2012년 3월~2023년 현재 : 강원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 2017년 9월~2022년 8월 : 숭실대 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 박사)
- 관심분야 : 지역사회정신건강, 융합 연구
- E-Mail : corea-yes@nate.com